

태평양주보 KOREAN PACIFIC WEEKLY

발행인	동지 회주상부	Publisher	Korean Dongji Hoi
발행소	931 노스.킹.스트리트 호놀룰루, 하와이	Address	931 North King St. Honolulu, Hawaii
사장	리 정 근	President	Chung Kun Lee
주필	김 창 원	Editor	Donald C.W. Kim
전화	850-849	Telephone	850-849
발행호수	1759	Subscription	\$10.00 per year
발행일	음력 구 7월24일 금요일	Issue No.	1759
		Date	Sept. 5, 1969: Fri.

북비에트뎀 대통령 호치민 사망의 소식

(워싱턴 9월3일 밤, 에이피) 모스코바의 고층의 미확인정보에 의하면, 호.치.민 북비에트뎀대통령의 사망이었다고 한다. 워싱턴의 미당국측에서는 이 정보의 확인은 입수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파리 회담 회담의 북비에트뎀대표단도 이에 대해서 아무 비평을 가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노이의 공시발표에서는 "호.치.민대통령의 용례는 악화되고 있다" 라고 말하였을 뿐으로, 병명도 명백치 않다. 그러나 근년의 정보에 의하면 동대통령에는 심장장애가 있고, 다분히 폐질환을 병발한 것으로 보인다. 동대통령은 40년대에 결핵을 앓았다고 한다.

대통령 위독상태를 하노이 방송

동경 밤, 하노이 통신... 하노이 방송은 3일 북비에트뎀노동당 중앙위원회가 3일 오전 발표한 성명으로도 호.치.민 동국대통령의 병은 더 악화되고 있으며, 중태에 더러져 있다고 전하였다. 이에 앞서서, 파리 회담 교섭의 북비에트뎀대표단도 2일 밤 성명을 발표하고, 호.치.민대통령이 이 수주일간 병으로 의사단이 주야를 계속 간호하고 있으며, 우리는 전력을 다하여, 대통령의 건강회복(건강회복)을 위해서 손을 쓰고 있다고 말하였다. 동성명은 호.치.민대통령의 병과 집세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만일의 경우

호.치.민대통령은 79세의 고령으로, 최근에는 이미 심부로부터 거의 인위되고 있다고 하는데, 오랜 세월 동안 반제국주의, 반식민지 투쟁의 선두에서 혁명의 투사로서 북비에트뎀의 지주가 되어왔기 때문에, 호.치.민대통령에 만일의 일이 있으면, 혁명 투쟁의 상징을 일체 되고, 비에트뎀전쟁을 비롯하여 파리 회담 회담의 장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중소간의 문제

또 여태까지 북비에트뎀은 중공과 소련의 대립의 사이에서, 교묘하게 양국으로부터 원조를 붙잡고, 국내정책과 비에트뎀정책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호.치.민대통령에 만일의 일이 있으면, 격화하는 중.소대립의 사이에서, 북비에트뎀이 급우 어떠한 태도를 취할가가 주목되고 있다.

북비에트뎀 추양보?

파리 회담 교섭의 북비에트뎀대표단의 스산.트위수석대표는, 미국이 남비에트뎀으로부터 속히 또 대륙으로 철퇴한다면, 파리 회담의 정돈상태를 타개할 길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시사하는 동시에 철병의 규모로서 10만명을 철거하면,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제2면에 계속)



(제1편으로부터 계속)

북비에르넴은 여태까지 미군의 무조건전철퇴를 주장하고있으며, 10만명이라는 일보 양보한 형식으로 철병문제에 언급한것은 오.치.민대통령이 병으로 중태위독상태에있다는것과 관련하여 국이 주목되고있다.

애랍 유격대기지를 이스라엘이 공습

(에이총합 9월3일발) 이스라엘군은 3일, 율단영의 가리리호남방3마일과 레바논영 하몬산의 애랍 유격대기지를 공습하였다. 이스라엘의 레바논공습은 전달 국련안전보장리사회의 비난결의를 받은 이래 처음이다. 스에즈운하남단의 모.르.라이 워크부근에서는 이스라엘, 에지프드양군의 총포격이 교환되었다. 국련본부에서는 우.란트국련사무총이 시리아에대해서, 리.다불유.에이키 박탈후 여전히 구류되어있는 이스라엘인 승객 2명을 석방하도록 요청하였다는 정보가 전해지고있다. 우.란트사무총장의 사무국에서는 이것을 확인하지안코있다.

북비에르넴 수뇌의 권력 투쟁 제2단계

(사이곤 9월4일발, 공동) 사이곤의 외교측은 오.치.민대통령의 죽임으로서 북비에르넴수뇌진은 표면상 일치단결을 가장하면서, 그의 권력투쟁은 제2단계에 들어간 모양이라고보고있다. 동측에의하면 오대통령의 명백한 후계자는 업스며, 81세의 돈.다.란부대통령이 헌법의 규정에서의 대통령대행으로 취임할것으로보이는데, 환.반.돈수상, 레.주안노동자당제1서기, 추.은.친 국외상임 위의원장, 보.권.잡국방상의 4명에의한 집단지도체제가 힘을 차지하게될것이 가능하다고한다.

파리 회담도 연기

(파리 9월4일발, 공동) 4일에 예정되어있는 제33회 파리 회담은, 북비에르넴대표단이 오.치.민대통령의 사망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하였기때문에, 11일로 연기되었다. 스안.오이 북비에르넴수석대표와 임시혁명정부수석대표의 권.치.빈 위상은, 국장에 참석하기 위해 4일 파리를 출발, 하노이에 향한다. 파리 회담은 회담개시에서부터 합의된 수속규정에의해서, 한쪽이 연기를 요청하면 상대방의 동의가 업드라도 연기할수있게 되기 되어있다.

중공, 소련 수뇌가 대면

오.치.민 북비에르넴대통령의 국장이 4일부터 10일사이에 하노이에서 거행되는데, 중공은 주은리 수상을 참석시킬것을 작정하고, 동수상은 4일 하노이에 도착하였다. 한편 소련은 예정되어있던 아이지 일본외상과 코스이긴소련수상과의 회담이 중지된다고 통고하여 온것으로보아, 코스이긴수상을 국장에 열석시킬 의향이라고본다. 만일 코스이긴수상의 하노이방문이 실현되고, 주은리수상 일가를 마주치게된다면, 문 회대혁명이라, 결정적인 대결단계에 들어가있는 중공, 소련수뇌의 첫 대면이 되며 주목되고있다.

국장을 하노이 방송이 발표

(사이곤 9월4일발, 에이피) 하노이방송은 "오.치.민 북비에르넴대통령은 심장마비때문에 하노이 시간 3일 오후 9시 47분에 사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비에르넴을 통해서 가장 엄숙한 국장이 거행된다" 라고 동방송은 발표보도하였는데, 시일은 말하지안했다. 류바방송에의하면, 매장은 9월10일에 거행된다고한다. 북비에르넴, 해방전선이 장예기간중에 휴전을 선언할지는 아직 모른다. 새.크레민체의 니슨미대통령대변인은 오대통령 사망에대해서 평가를하지안코, 미군부, 외교측도 같은 태도를 취하고있다. 사이곤의 소식통은 오대통령이 사망하더라도 하노이의 전쟁정책에 중대한 변화는 업을것이라고보고있다.



연방정부건설사업 7+5 퍼-센트 삭감을 부른 대통령이 지령

(샌프란시스코 9월4일발, 에이피) 니슨대통령은 연방정부건설사업을 지시 75% 삭감하도록 지령하였다. 또 각주정부, 지방자치단체에대해서도 연방정부에 따라서 건설계획을 축소하도록 요청하였다. 동대통령은 "인플레이션 억제대책중에서 급등하는 주택비는 특히 큰 관심을 끌 요인으로되어있다" 라고 말하고있다. 또 대통령은 "내각건설위원회"도 신설하였다.

켄네디 의원의 사고 심리를 연기

(보스톤 9월2일발, 에이피) 매사추세츠주최고재판소 리아드론판사는 2일 "3일부터 개시되는 매리. 조.코페루니양의 사망사건에대해서의 심리를 연기한다. 최고재판소는 켄네디상원의원의 변호 단에의해서 제기된 헌법상의 제문제를 고려한다" 라고 재정을 내렸다. 켄네디의원의 변호단은 법정에서 "켄네디의원은 본사건에대해서 일반보도의 초점에 서있다. 또 에드카라운 지방재판소의 보일 판사는 심리에있어서 변호단이 반대신문을 할것을 거부하였는데, 이것은 켄네디의원의 권리의 침해이며, 심리는 고발적인 성격을 띠고있다" 라고 주장하고있었다.

하이람, 황의원 지지를 노동조합이 성명

하이람.황 국회상원의원의 기금모집 표창찬찬회는 지난 토요일밤 토이얌.하와이안.호텔에서 개최되었는데, 약천5백명이 이 50불 짜리 만찬회에 참석하고, 성대하였다. 가주로부터 날려온 아이.엘.다불유.유 부회장 재.몰씨는, 황의원의 1970년 재임후보를 지지한다고 성명하였다. 또 동씨는 번소지사, 길부지사, 마스나가, 핑크양국회하원의원도 지지한다고 말하였다. 이들의 지지는 최근 열린 하와이 지부의 주임후보자지선정집회에서 결정된것인데, 임후보자의 지지 성명은 보통선거운동당시에 행하여지는것인데, 이와같이 일찍이 성명한것은 드문 일이라고보고 있다.

하와이 대학 신총장 크리-브랜드 박사의 시정연설, 구상은 크게 진진

(호놀룰루 9월3일발) 하와이대학의 신총장으로서는 지난 2일부터 정식으로 시무하는 하.랜.크리브랜드씨는 대학구내 앤드류 약외극장에서 열린 시업식에서 처음되는 "시정"연설을하였는데, 그중에서 대학교육에대해서 다음과같이 구상의 일단을 말하였다. "부유한 사회라고 불리지는 지금의 사회 다음에오는것은 무엇이나 제군은 그의 부유한 사회의 자녀이다. 부유의 사회의 자녀들이기때문에 구상은 크게 가져야한다. 처음부터 인생을 작게 계획한 상자속에 넣서는 안된다. 그의 계획의 실현에는 성공할런지모르나, 그때문에 시야를 적게하고, 행동의 자유를 잃어버릴 위험이있다는것을 잊어서는안된다. 제군은 오는 50년간 살것이다. 제군은 온 모험의 세대에 산다. 그의 모험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학교육을 기점으로한다. 하와이는 지금 급속히 팽창하고있다. 이 비약적인 성장때문에 하와이는 과거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려서는안된다. 하와이대학은 이 신장의 격류속에서 살아나가야한다. 대학은 그의 자녀의 환경 지적, 그리고 도덕적인 본위기에 큰 관심을 기울여야한다. 하와이는 만흔 문제를 내포하고, 또 큰 기회를 제공하고있는점에서 전미국의 촉두라고할수있다. 규모가 작기때문에 대학에서 불가능한 사회적 선단을 걸 작정이다. 제군중에서 이 약동하는 선단에서 일하는 자도 나올것이다."

신총장 배척의 학생 시위운동

크리브랜드신총장이 취임직후 처음의 *시정*연설을 하고있을때 회장의외에서는 학생민주협회에 속하는 좌익학생의 일부가 신총장에대한 반대시위를하였다. 시위단이 배부한 비바속에는 크리브랜드씨가 외교관으로서 중시 미국제국주의의 범오를한것, 특히 미국의 류바, 도미니카공화국, 비에트남등에대한 침략행위를 지지하여온것등을 크리브랜드씨자신이 쓴 언질을 인용하여 강조하였다.

호노룰루시장 화씨시 시정 8개월에 인이커하

8월31일의 케이.지.엠.비 레레비존은 저녁의 가장 청취자가 많은 시간을 이용하여, 화씨시 호노룰루시장이 취임 이래 8개월간에걸친 시정에대한 호노룰루시민의 평가방송을하였는데, 그에의하면 호노룰루시민의 대다수는 만은 문제에대해서 호노룰루시장과 의견차이를 보이고있다. 그러나 화씨시시정에대해 의견을 가지고있는 71% (다만 29%는 의견없다) 의 시민중에한개서 판단하면, 그중의 51%는 시장지지, 49%가 반대를 표명하고있다. 레레비존의 결론은 동사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의해서 된것인데, 12의 질문에대한 시민의 답은 불만족감다. 시정 단지 8개월에서 이미 시민의 인기를 일로있는 화씨시시의 쓸쓸한 모습이 보인다.

미본토, 하와이간 항공요금 8+5불

팬.아메리칸항공에서는 오는 월요일부터 하와이.로스앤젤스간의 항공요금을 인하하기로하였다. "에로노미" (경제급)에서는 16불이 싸져서, 94불, "스리스트" (아주싼것) 또는 15불 내려서 85불으로된다. 또 상항.포드랜드, 시아들과 하와이간의 요금인하도, 정부의 승인을받은후 10월1일부터 인하되게된다고한다. 미본토.하와이간의 요금인하를 실시하는것은 팬.아메리칸이 최초이다.

팬.아메리칸 항공회사에서 새로 하와이공항에 비행을 시작한 웨스턴.에아.라인 항공회사에서 항공요금을 똑같이 인하할것을 발표하였다.

사망 보고

동지회오상부원이신 서학서씨는 8월29일에 82세를 일기로 병원에서 별세하셨는데, 장례식은 9월2일 하오 6시부터 9시까지 보스워 장례소에서 개관조식과 김치연목사님의 주례하에 8시반에 기도회가있었고, 일일상오 9시부터 하오 1시반까지 다시 개관하여 고인의 생전시의 친지들모하여금 조리케한후, 하오 1시반에 김치연목사님의 주례하에 영결식을 거행하고 발인하여, 다이야몬드.헛드 매장지에 안장하였다고한다.

한인기독교교회 소식

로랑기독교교회에서는 지난 8월31일 종합예배후에 평신도회를 개최하고, 협교회에 임접한 토지매매절에대해서 오의의론한바, 8만7천불이라는 대금을 지금내고 이 토지를 구입하여 몇년을두고 빛을내어 지출해나가는것이 현명치안타는 결론을내어, 이토지매매건을 부결하였다고한다.

주말 세경 보단

년백금	가이무기	리영춘	10.00	황남이	10.00
적립금	가이무기	리영춘	2.00	황남이	2.00

